

-(으)니까

~니까 — 말하는 사람의 판단 근거

또 하나의 '이유' 표현입니다. -아서/어서가 단순한 원인을 나타낸다면, 이 표현은 이유를 뒤에 오는 말의 근거로 제시합니다. 그래서 요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이 어미뿐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어간 종류	형태	예
받침 없음	-니까	가다 → 가니까
받침 있음	-으니까	먹다 → 먹으니까
ㄹ 받침	ㄹ 탈락	만들다 → 만드니까
과거	-았/었으니까	가다 → 갔으니까
이다	-(이)니까	학생이니까
뒤에 오는 말	명령, 제안	달으세요, 갑시다, 하지 마세요

■ 언제 쓰나요

-(으)니까가 -아서와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. 첫째, 뒤에 명령과 제안이 올 수 있습니다.: 추우니까 창문을 닫으세요. 둘째, 시제를 붙일 수 있습니다.: 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안 가요. 두 가지 모두 -아서로는 불가능합니다.

결합 방법은 기본 규칙을 따릅니다. 모음 어간에는 니까, 자음 어간에는 으니까를 붙이며, ㄹ 어간은 평소처럼 ㄹ이 탈락합니다. 만들다는 만드니까, 살다는 사니까가 됩니다.

알아 둘 만한 두 번째 용법은 발견입니다. 동작에 붙어 'X를 해 보니 Y임을 알게 되었다'라는 뜻을 나타냅니다: 집에 가니까 아무도 없었어요. 이 때는 이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, 무언가를 알아차리게 된 순서를 나타낼 뿐입니다.

■ 예문

- 1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세요.
- 2 비가 오니까 우산을 가져가세요.
- 3 제가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.
- 4 배고프니까 밥부터 먹읍시다.
- 5 어제 갔으니까 오늘은 안 가도 돼요.
- 6 위험하니까 조심하세요.

■ 비교

-아서/어서

가장 확실한 기준은 뒤에 무엇이 오는가입니다. 뒤 절에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하라고 한다면 -(으)니까만 쓸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원인을 말할 때는 둘 다 가능하지만 -아서가 더 중립적으로 들립니다.

추워서 달았어요. (달았다) / 추우니까 달으세요. (달아 주세요)

정해진 인사말

인사 표현은 -아서로 고정되어 있습니다. -(으)니까로 바꾸면 변명하듯 따지는 말투로 들립니다.

만나서 반갑습니다. / 만나니까 반갑습니다(×)

-(으)ㄴ/는데

-는데는 인과 관계를 주장하지 않고 배경을 제시합니다. 무언가를 설명하기보다 이야기를 이끌어 갈 때 쓰세요.

추우니까 달으세요. (추우니까) / 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어요. (추운데 창문이 열려 있다)

■ 주의

✗ 제가 만들으니까 기다려 주세요.

○ 제가 만드니까 기다려 주세요.

ㄹ로 끝나는 어간은 이 어미 앞에서 ㄹ이 탈락합니다. 사니까, 아니까, 노니까도 마찬가지입니다.

✗ 만나니까 반갑습니다.

○ 만나서 반갑습니다.

인사와 사과는 -아서로 만든 고정 표현입니다. 늦어서 죄송합니다도 같은 방식입니다.

✗ 배가 고파서 밥 먹을까요?

○ 배가 고프니까 밥 먹을까요?

제안도 명령형으로 취급하므로 -아서는 쓸 수 없습니다. -(으)ㄹ까요, -(으)세요, -(으)십시오로 끝나는 절 앞에는 -(으)니까가 와야 합니다.